

# 사라져가는 濟州의 風物들

## 3년째 여섯권 간행된 「제주의 마을」 시리즈

「물맑은 옛 진터 涯月里」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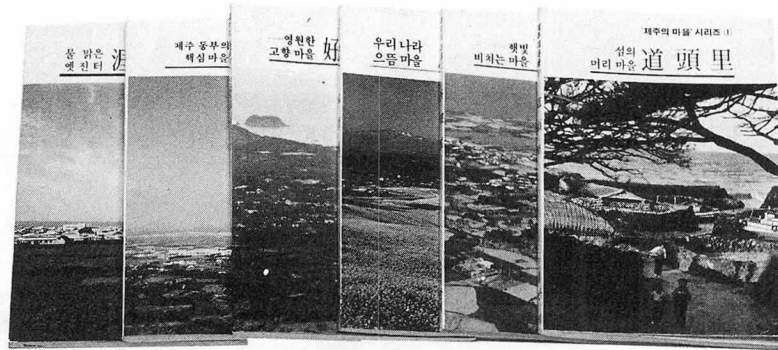
吳成贊 著

### 내 고향에 쓰는 小說家의 사랑

민요를 비롯하여 사라져가는 제주의 온갖 풍물을 담은 「제주의 마을」 시리즈가 한 소설가의 노력으로 그 여섯권째 책이 발간되었다. 3년째 이 외로운 작업을 계속해 오는 주인공은 제주도 출신 소설가 吳成贊씨(47).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유별난 그가 최근 「물맑은 옛 진터 涯月里」를 내놓은 것. 이 시리즈는 오성찬씨 스스로가 기획, 현지답사, 문헌조사, 집필은 물론 출판까지 도맡아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는 이 시리즈의 출판을 위해 85년 10월 제주시에 「반석」이라는 출판사를 차렸을 정도.

「제주의 마을」 시리즈는 당초 50권을 내기로 작정한 뒤, 지난 85년 「섬의 머리마을 道頭里」를 시작으로 「햇빛 비치는 마을 吾照里」(1986), 「우리나라 으뜸 마을 威德里」(1986), 「영원한 고향마을 好近·西好里」(1986), 「제주동부의 핵심마을 古城里」(1987) 등 지금까지 다섯권이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4X6판 크기 200여 페이지에 마을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근 나온 「물맑은 옛 진터 涯月里」는 책머리에서 이 마을 특징을 나타내는 장소와 옛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화보를 꾸며 그간의 변모를 실감케 한다. 그 다음 마을의 지도가 들어가고 자연환경, 사회적 배경, 마을의 형성과 변천, 인구의 이동, 땅·바다·내의 이름, 전설과 민요, 민속, 신앙, 언어·속담, 교육, 유물·유적, 忠·孝·烈·鄉約·契, 人脈 등으로 꾸며져 있다. 시리즈의 다른



책들도 내용 구성은 이와 비슷하다.

오성찬씨가 고향인 제주의 마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십여년전 제남신문사 기자로 「제주의 鄉史」를 연재하면서부터.

“제주에는 5,6백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마을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을마다 특이한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귀양으로, 혹은 정치적 망명으로 거친 바다를 건너와서 부평초처럼 정착했던 사람들. 그들이 쥐어지는대로 붙인 밭 이름, 바다이름, 언덕이름들이 마을의 역사와 삶의 궤적을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시대의 해일은 그 자취를 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는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흩어진 마을의 변화, 물줄기로 유명한 샘들이 근대화해 밀려 메워지고 만 흔적들이 고스

란히 기록으로 담겨 있다. 또 테우리(목동), 몽생이(망아지), 두둑(작은 언덕), 버덕(조금 너른 들) 등의 사투리, ‘비바리 늑어가민 물허벅지영 산드레 오른다(치녀가 늑어가면 영똥한 것이나 심술을 피운다)’는 속담도 수집되었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늘 건디기 힘든 일이라고. 기록에 빠져서 섭섭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을 욕되게 했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아직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

반면, 이 일에 대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큰 힘이 된다.

“첫 권을 내놓을 때는 성적표를 받는 아이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이 일에 대해 힘든 일 하나라 애쓴다며 각처에서 격려의 소리가 들려 오더군요.”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며 도움을 청해온 사람도 있었고, 문화인류학·사회학·역사학 분야의 학자들은 좋은 자료가 된다고 감사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오성찬씨의 책이 나온 이래 제주도내 몇개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마을풍물지를 엮어내기도 하는 등 자못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는 550여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들 중 유서가 깊거나 특색이 있는 마을을 골라 시리즈로 엮고 있는 거지요. 제 평생 50개 마을만큼은 정밀조사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할 작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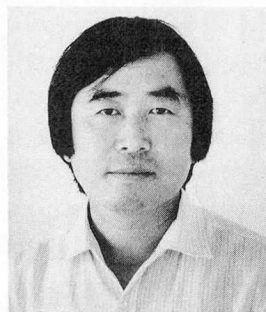
책을 내면서 이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다는 오성찬씨. 그는 제주도의 흥과 바람, 정겨운 사투리 하나에도 깊은 애정을 느끼며, 마을 한편에 버려진 童子像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탐라인」, 「한라산」, 「습작우화」, 「세한도」 등 그가 써온 일련의 소설들이 모두 제주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애정에서 연유하는 게 아닐까.

「제주의 마을」 시리즈는 앞으로 金寧里와 奉蓋洞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향토사의 일면을 개척하고 있는 오성찬씨. 그는 이 시리즈의 완결이 제주의 참모습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길 바란다.

도서출판 반석/B6/각권 200면내외/각권 2000원

—박경순 기자



“ 소설가 오성찬씨는 제주도의 550여개 자연부락 중 유서가 깊고 특색이 있는 마을 50개를 시리즈로 엮어 제주의 참모습을 오롯이 드러내고자 한다. ”

## 인류문명의 起源과 「한」

김상일 엮음

세계 문명의 뿌리, 그 한국적 맥락.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고 수메르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제 I부 아시아 및 인디언 문명의 기원과 「한」

제 II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제 III부 근동아시아 문명 개관

제 IV부 구약 성서와 수메르

제 V부 수메르와 한국 문명

\* 값 5,000원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

## 註解 桓檀古記

金股洙 註解

三聖紀(安含老·元董仲)

檀君世紀(李岳)

北夫餘紀(范樟)

迦葉原夫餘紀(范樟)

太白逸史(李珣) 값 5,000원

## 符都誌

朴堤上 著/金股洙 譯解

符都誌·朴堤上/小符都誌·朴堤上/

澄心錄追記·金時習/要正澄心錄演

義後記·朴錦/金時習의 「澄心錄追

記」考察·金梓洙/韓國 上代史와

그 文化·金股洙 값 4,000원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

## 檀君實史에 關한 文獻考證

李相時 著 값 7,000원

우리 나라 檀君 關한 文獻은 물론, 中國·日本의 모든 史料를 對比·分析한 檀君 研究書의 決定版

## 天符經과 檀君史話

金東春 著 값 5,000원

天符經/檀君史話/祭天史話/桓民族의 移動史話/韓國語와 世界諸語/

부록: 天符經과 自然科學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

## 韓民族의 뿌리思想

哲學博士 宋鎬洙 著

天符經의 始源探究 三一神話·參佺戒經의 脈絡 韓民族 固有思想의 現代的 意義 「한」 思想 값 7,000원

## 開天經

哲學博士 宋鎬洙 著

우리 겨레의 뿌리 思想을 담은 三大經典, 天符經·三一神話·參佺戒經을 알기 쉽게 풀이하었다. 값 6,300원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